

2015년 12월 6일 주일 설교

와싱턴한인교회 김영봉 목사

‘제자됨을 허무는 열 한 가지 사상’(9): 성공주의(Successism)

"어디로 가십니까?"(Where Are You Heading?)

누가복음 3:1-2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고, 네가 노력하는 한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념입니다. 이 믿음은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력만 하면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그리 많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뜨겁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까요? 내가 이룬 성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까요? 잔인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약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삶의 목표로 두고 성공하기 위해 분투하는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성공에 대해 관심이 없을까요?

첫째, 성공만을 추구하는 삶은 너무도 자주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결국에는 허무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공주의는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을 잡기 위해서 분투하게 만듭니다. 바라던 것을 잡고 난 다음에야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님을 아는데, 그때는 이미 인생을 모두 허비하고 난 다음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잡고 누려 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전 2:11).**

성공주의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헛된 것을 잡으려고 인생을 허비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잡기 위해 거짓과 불의에 손을 담그게 만듭니다. 눈 앞에 있는 목표가 너무도 절실했을 때면 그것을 잡기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 자신의 건강을 걸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둘째, 성공주의에 빠지면 필경 사람을 차별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찾아 만나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눈에 들기 위해 굽신거립니다. 반면, 자신의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차갑게 외면합니다.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일수록 유명 인사 혹은 성공한 사람들과의 친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을 향하십니다. 가난하고 냄새나고 병든 곳에 관심을 두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을 먼저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광야에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기 전에 저자 누가는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권력자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로마 황제 디베료, 유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 로마 황실의 승인 하에 유대인들을 분배하여 통치하고 있던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 그런 다음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고 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이 방향성이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당시 여인들 중에 가장 비천한 한 여인의 태를 통해 태어나셨고, 가난하여 제때에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을 통해 양육되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그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을 모두 피하여 동방의 점성가들에게 알려졌고, 그 많은 귀족들을 피하여 가난한 목동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낮고 어두운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성공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보고 싶어하고 또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성공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공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이 세상에서 성공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무능하고 실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숨이 차도록 발버둥쳐도 가난의 울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재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기 전까지 이 세상은 그럴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패배한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두십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홀로 성공하여 홀로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성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성공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성공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 아메리칸 드림에 속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는 참 주인이신 주님께 인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도,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도,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 그런 사람들이 꾸는 꿈을 ‘킹덤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꿈을 말합니다. 자신을 진실로 복되게 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향하게 만들지만 킹덤 드림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낮고 어둡고 가난하고 병든 곳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낮은 곳으로 찾는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더 높은 곳, 더 빛나는 곳,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킹덤 드림을 품고 주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낮고 어둡고 냄새나는 곳을 향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속회자료> 2015년 12월 6일 주일 설교

"제자됨을 허무는 열 한 가지 사상"(9)
"어디로 가십니까?"(Where Are You Heading?)

1.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104 장(통 104 장)
2.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3. 누가복음 1-3 장을 읽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10 분)

4. 말씀의 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5. 말씀의 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간이 90 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2)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최근의 조사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공을 목적으로 삼았다가 낭패를 본 경험을 나누어 주십시오.

3) 성공이 아니라면 예수의 제자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4) 요즘 당신이 자주 만나는 사람은 누구이며 자주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방향과
주님의 방향이 얼마나 일치한다고 생각합니까?

6. 기도

1) 아메리칸 드림에 속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2)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7.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8.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311 장(통 185 장)

9.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